

부자 어촌마을 신비의 섬 장고도

이재언 _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섬의 개요

섬의 면적 1.5km², 해안선 길이 8.6km, 인구는 297명(2001년)이다. 섬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얼핏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섬·장고섬·외장고도 등이라고 하다가 1910년부터 장고도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장고도는 대천의 섬들 중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섬으로 북풍을 가장 많이 받는 섬이지만 밀려온 파도 덕분에 맛있는 해수욕장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장고도를 ‘충남의 제주도’나 ‘황금의 섬’이니 하는 색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제주도만큼이나 아름답고 바다의 황금, 즉 해산물이 풍부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일 터였다.

섬 둘러보기

장고도와 필자는 인연이 많은 섬이다. 이 섬에서 지인 때문에 두 번이나 등대호를 정박하고 섬을 답사한 기억이 새롭다. 대천항에서 차도선이 하루에 세 번 왕복을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만한 섬이다. 대머리(원래는 ‘대멸’인데 흔히 이렇게 부른다)선착장은 섬의 북동쪽 끝 모서리에 위치해있다. 장고도는 태안국립공원의 가장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섬이다. 장고도를 찾는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곳은 두 군데였다. 썰물 때는 섬 북쪽, 밀물 때는 남쪽 등대에 여객선이 닿는 것이다. 서해의 간만의 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선착장에 들어서면 방파제 끝의 하얀 등대가 우뚝하다. 마치 장고도를 지키는 장승처럼 등대는 든든한 느낌을 준다. 선착장을 나오면 앞에 대합실과 함께 그 뒤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많지 않은 소나무 숲 안에는 현대식 건물과 함께 주변에 정자와 다른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바로 ‘등바루놀이’와 관련된 시설이었다. 2009년에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복원됐다고 한다. 유명한 해당화 군락지도 옆에 나란히 붙어있다. 섬의 모습이 장고를 닮았다고 해서 장고도란 이름이 붙었다고 지명 내력이 소개된 이곳은 태안 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이기도 하다.

200년 전통의 등바루 놀이

무장고도가 자랑하는 문화전통은 2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등바루놀이이다. 매년 4월 초에 벌이는 ‘등바루놀이’는 장고도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처녀들의 집단놀이로 원래는 마을 처녀들이 하루 전날 바닷가에 둥근 돌담(등바루)을 쌓는데, 돌담 안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바다 쪽을 향해 넓이 1m 정도를 터놓는다. 놀이 날이 되면 처녀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조개 등 어물잡기 경합을 벌이고 점심때가 되면 이긴 편과 진 편을 가린 후 돌담 안



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동그란 원을 만들어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노래와 춤을 추면서 놀이를 하는 일종의 성년식 성격의 놀이다. 또 이곳 해변에서 굴 캐기 대회가 끝나면 노래 부르기, 굴 아씨 뽑기 등을 하면서 동시에 풍어제를 지낸다. 장고도가 등바루놀이는 지난 1981년도에 제주도에서 열린 제 21회 전국민속대회에서 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밖에 전통적으로 진대서낭제, 용왕제, 등불써기가 전해 오고 있다.

등바루공원에서 북쪽 해안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모래해변이 위치해있다. 사실은 선착장이 있는 곳 전체가 모래해변이지만 그 가운데에 선착장 시설을 했다. 여기서 앞에 보이는 큰 섬이 '안면도' 다. 여기서 북서쪽 끝 모래해변으로 가면 이정표가 있다. 왼쪽으로 명장섬해수욕장 가는 길이 있다.

장고도의 자랑 명장섬 해수욕장과 당넘어해수욕장



대머리선착장에서 해안탐방로 1구간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명장섬해수욕장까지는 1.25km란다. 그리고 옆으로 오르막 계단길이 보인다. 산책로 입구 안내에 의하면 이곳에 뱀이 많다고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다. 탐방로는 약간 튀어나온 지점 높은 곳에서 왼쪽으로 꺾여 들어간다. 하지만 숲으로 인해 전망을 즐기기에는 영점이었다.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나무들로 인해 전망대 구실은 못하고

다만 쉬어가라고 벤치 두 개를 ㄱ자 형태로 설치해두었다. 이어 한참을 가면 대머리선착장에서 750미터 지점에 이른다. 여기서 명장섬까지 750미터 남았다는 이정표가 있다. 아마도 이쪽이 섬의 최북단이 아닐까 싶다. 이쪽 길에는 대나무가 무척이나 많다. 이어 어느 정도 내리막길이 이어지면서 앞에 모래해변이 보인다. 계단으로 된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앞에 모래해변과 함께 약간 높은 지점에 이른다. 명장섬해수욕장에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섬 같은 바위산이다. 이곳에 올라가면 밧줄로 난간을 두른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여기서 내려오면 해안도로가 이어지고 그 입구에 안내판이 있다. 해안탐방로 안내도다.

해안도로에는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방사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곳 모래 역시 가늘다. 여기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오른쪽은 넓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바로 '명장섬해수욕장'이다. 비포장도로가 끝나면서 길은 갈라지는데 왼쪽은 마을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주위에 왼쪽 해안도로 옆으로는 몇 채의 펜션이 들어서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장섬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곳이다. 건축물도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었다.

해안도로를 따라 계속 걷다 오른쪽으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 앞에도 넓은 모래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저 뒤로 명장섬이 있는데 크고 작은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침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어 해수욕장 남쪽 끝자락, 갈림길이 나타난다. 해안을 따라 계속 가면 조그마한 야산을 끼고 건너편 해수욕장으로 이어진다.

명장섬해수욕장 뒤 북쪽의 들판은 ‘웃방축들’이라 하고 그 아래의 들판은 ‘가운뎃축방들’이라고 한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당넘어해수욕장 뒤로는 방조제인 듯싶다. 그 뒤가 ‘아랫방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어 삼거리가 나온다. 여기서 왼쪽은 대머리선착장 가는 길이고 오른쪽이 마을로 가는 길이다. 이 옆에 교회가 있다. 조립식 건물로 된 교회다. 이어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당넘어해수욕장’ 표시가 있다. 여기서 100m 거리란다. 이 앞에서 길은 다시 좌우로 갈라진다. 오른쪽은 마을 안길이고 왼쪽은 해안길이다. 이 앞에도 모래해변이 이어진다. 물론 이곳 갯벌 역시 양식장이다. 이곳은 크게 두 곳의 양식장이 있다. 명장섬해수욕장과 당넘어해수욕장 영역과 함께 동남쪽 해안인 대머리선착장부터 이곳에 위치한 선착장까지다.

장고항 가는 길에 매표소가 있다. 민박과 매점을 겸하는 곳이다. 이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왼쪽으로 방파제가 보인다. 역시 방파제 가운데에 T자형 철 기둥들이 심어져 있다. 그런데 이 앞에서 길은 오른쪽으로 연결되는데 앞에 공사 현장이기 때문이다. 장고도항 물양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사 현장을 옆으로 끼고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계속 가면 역시 삼거리가 나온다. 옆에 이정표가 있다. 여기서 대멸항까지는 1.2km이고 왼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면 제2해안탐방로인 달바위가 나오는데 200m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제2해안탐방로인 장고분교가 300m 거리. 남방파제 입구, 여기서부터 ‘장고도길’이 시작된다. 여기서 남쪽 해안을 보면 이곳에도 방파제가 있다. 그런데 방파제는 높이가 낮아 물이 들어오면 물에 잠길 것 같다.

삼거리에서 장고분교로 향하다보면 왼쪽은 저수지 그리고 논, 오른쪽은 물기 많은 흙이 있다. 염전 터다. 저수지는 안내도에 의하면 ‘염전저수지’라고 한다. 2013년 8월 일행들과 인천을 향하여 올라가던 중에 하루를 머물면서 염전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소금을 만들고 있었다.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민박집도 운영하고 있다. 섬의 골목에는 젓갈을 담아 놓은 젓갈 통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봄에는 까나리, 여름에는 새우를 잡아 젓갈을 담는 것이 가장 큰 수입원이다. 젓갈 통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은 그 만큼 해산물이 풍성하다는 신호이다. 풍성한 해산물 때문인지 부자 마을로 주위에서 알려졌다. 이 조금만 섬에 오





면 해수욕을 하면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해 전망이 아주 좋은 섬으로 인상이 깊었다.

염전에서 길은 갈라지는데 왼쪽은 발전소로 가는 길이고 직진이 분교 가는 길이다. 분교 가는 길을 걷다 왼쪽으로 길이 꺾이는데 그 입구에 교회가 있다. 여기서 꺾어들면 바로 학교 정문이 나타난다. 입구에 자전거보관 시설이 있고 그 옆으로 학교로 가는 오르막길이 있다. 정문 앞에 서서 학교를 바라

보면 운동장은 맨땅 그 자체다. 오른쪽으로 단층짜리 교사가 있고 그 왼쪽으로는 2층 규모의 등바루관이 있다. 교사 앞에는 두 개의 조형물이 있다. 책 읽는 소녀상과 이승복군 동상일 것이다. 청룡초등학교 장교분교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 중의 하나라고 한다. 학교 왼쪽으로 탐방로가 있다. 제2탐방로로 청룡초등학교 장교분교에서 뚝단너 전망대를 거쳐 달바위까지의 약 1km다.

당념어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온통 논뿐이다. 논에는 여러 형태의 허수아비를 심어두었다. 논 두렁길이지만 시멘트로 포장해 차량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얼마 가지 않아 닿은 해수욕장. 해수욕장의 한가운데다. 해수욕장에 이르는 길은 이곳 말고도 양쪽 끝자락에도 있다. 왼쪽의 마을에서 들어오는 길과 오른쪽 명장섬해수욕장 끝트머리에서 오는 길이 그것이다. 평지에 가까운 이 섬에 그나마 유일하게 '산' 자가 들어간 곳이 당산인데 명장섬과 당념어해수욕장을 잇는 이 야트막한 산이 그것이다. 이 산 앞 해안을 '당너머'라고 한다. 이곳 해수욕장은 명장섬에 비하면 별로인 해수욕장이다. 양쪽 끝에 넓게 형성된 갯바위지대 외 별 특이한 것은 없다. 여기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명장섬이 바라보인다.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섬 장고도, 여름이 되면 수많은 나그네를 불러들이는 섬이다. 장고도는 드라마 <구름계단>의 촬영지였다. 윤정원(손지혜분) 등이 의료봉사를 떠났던 섬이자, 최중수(신동욱분)가 일하던 보건소가 있다. 대전항에서 들어오는 선착장과 큰말의 여객선 매표소는 <구름계단> 드라마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다.



멸치 액젓으로 이름을 날린 교회

장고도교회는 석영화 목사와 이영자 전도사 두 여자 분이 콤비를 이루어 지금까지 36년간 같이 팀 목회를 하고 있다. 이 분들은 대천의 녹교회에서 17년, 장고도교회에서 올해 19년째 시무중이다. 석 목사는 1981년도에 녹도에 부임하여 그 다음해에 큰 문제에 부딪혔는데 다름 아닌 주민들이 적은배로 가득 잡아온 카나리아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 버린 것을 보고서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적당하게 소금을 섞어서 카나리아 액젓을 만들어 전국교회에 공급하였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다가 주민들의 요청으로 10년 동안 10리터 짜리 용기에 넣어서 가을 김장철에 전국교회에 승용차로 싣고 다니면서 공급을 하였다. 이런 일은 녹도 섬 경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석목사는 그 지역에서 카나리아 액젓의 전문가가 되었으며 그 방면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많은 때는 2,000개에서 2,500개 정도 만들어 직접 전국의 교회에 공급하면서 주민들도 친척들을 통해 차차 팔로가 생기면서 손을 떼고 지금은 이웃 섬 장고도 교회로 부임하여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청정 해역에 많이 나오는 이 카나리아는 지금은 녹도와 장도도 앞바다에서 사라지고 어장은 고갈되었다. 그 당시에 장고도교회도 녹도처럼 카나리아 액젓을 만들어 도시 교회로 낸 다음 교회와 사택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샘을 팠는데 물이 얼마나 좋은지 인근 군부대에 공급하게 되었다. 군부대에서는 밤에만 전기가 들어오고 낮에는 들어오지 않는 장고도 교회에 전기를 공급해서 24시간 혜택을 받아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문화 생활을 누렸다고 한다. 이 교회는 수련회를 하기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여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하려고 몰려온다. 교회가 영혼 구원과 함께 사회 구원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면서 장고도를 떠난다.

▣ 장고도 개요

장고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딸린 섬으로 동경 126° 21′, 북위 36° 24′에 위치하며 면적 1.5km², 해안선 길이 8.6km, 인구는 297명(2001년)이다. 장고도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에 속하며 삼시도에서 뱃길로 30분 거리이다.

■ 지명유래

섬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얼핏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섬·장고섬·외장고도 등이라고 하다가 1910년부터 장고도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 장고도 가는 길

대천항에서 승용차를 실을 수 있는 페리호가 하루 3번 있고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원산도(저두), 영목(안면도), 고대도를 경유하는 장고도행 신한훼리호가 1일 3회(7:30, 12:50, 16:00)에 출항. 자동차 선적도 가능하다.

▣ 관광명소

■ 명장섬해수욕장

명장해수욕장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고 해변의 경사가 완만하여, 썰물시 2~3km의 모래바닥이 나타난다. 해수욕장 맞은편에 명장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고 썰물 때에는 해수욕장에서 명장섬까지 자연적으로 생성한 자갈길이 나타나 하루에 두 번씩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다. 자동차가 다녀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약 2km에 달하는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진다. 명장섬의 일몰은 연중 볼 수 있으며 명장섬 너머로 떨어지는 일몰은 서해안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 당너머해수욕장

장고도 당산 서쪽 바닷가에 있는 1km의 아담한 백사장으로 백사장 끝머리에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용굴과 용굴넘어 북쪽으로 명장섬이 자리하고 있다. 기암괴석과 용굴 그리고 명장섬이 멋진 조화를 이룬다. 명장섬을 경계로 '당너머 해변'이 나온다. 당집이 있는 당산 너머에 있으니 당너머다. 여름 피서지로 손색이 없다.

■ 용굴과 용난바위

당너머 해변 끄트머리에 큰 구멍이 뚫린 '용굴' 바위가 있다. 바다의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이곳 해변을 기어 나오는데 바위가 가로막기에 그냥 뚫고 가버린 구멍이라고 한다. 용굴 구멍으로 명장섬에 솟은 '용난바위'가 있다. 이무기가 백년 수도해 결국 용이 돼 날아올랐다는 바위다.

■ 등바루놀이와 등불써기

장고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승 민속놀이인 등바루놀이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등바루'라는 어원은 등불을 밝힌다와 등불을 켜들고 마중 나온다는 말이 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바루놀이'는 일종의 처녀 성인식이다. 정월 대보름날이나 음력 4월 8일 전후하여 해당화가 만발하는 계절이 되면 장고도 섬마을의 초경을

지낸 규수들의 놀이이며, 명장섬해수욕장 모래밭에서 벌이는 장고도 사람들만의 유희이다. ‘등불써기’는 청년들이 벌인 일종의 지신밟기였다. 횃불을 들고 액운을 막고자 집집마다 돌아다녔던 놀이다.

■ 특산물

자연산 전복과 해삼의 맛이 뛰어나다.

전복삼계탕은 전복에 닭, 인삼, 대추, 밤, 마늘, 한약재를 넣고 만든 음식이고 전복, 해삼은 장고도 특산품이다. <

